

지금 인류는 로봇의 시대로 행진중

《로봇의 시대》와 《로봇의 행진》



귀여운 애완용 강아지를 저렴한 가격에 마련할 수 있다는 신문광고가 심심찮게 눈에 띈다. 그런데 이는 어미개가 새끼를 많이 낳아 눈물을 머금고 분양한다거나 족보 있는 좋은 종자를 보급하겠다는 광고가 아니다. 번쩍이는 몸체에 귀를 쫓긋 세운 로봇 강아지 광고다. 바야흐로 애완용 로봇 강아지를 사고 파는 시대가 됐다. 요즘 로봇 강아지는 아이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 가운데 하나다.

로봇의 연대기와 발전 가능성 설명해

로봇 강아지 아이보가 표지를 장식하고 있는 도지마 와코의 《로봇의 시대》(조성구, 사이언스북스)와 지

능형 로봇 엘마가 표지에 나선 케빈 워윅의 《로봇의 행진 : 21세기 지구주인은 로봇》(한국과학기술원 시스템제어연구실, 변증남, 한승)은 표지의 주인공만큼이나 남다른 개성이 돋보이는 책들이다. 《로봇의 시대》가 아이보의 애완·오락 이미지를 빌렸다면, 《로봇의 행진》은 엘마의 진지함과 지적 능력에 집중한다. 달리 표현하면 《로봇의 시대》는 가볍고 빨리 읽히며, 《로봇의 행진》은 진중하고 조금 어렵다.

두 책은 지은이의 성향 차에서 그 성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도지마 와코는 비교문화학을 전공한 전직 과학담당 기자다. 지난 15년 동안 의료문제·생명과학·과학기술 분야의 저술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과학에 관한 잡다한 지식과 상식이 풍부한 사람이다. 《사인(死因) 사전 : 사람은 어떻게 죽어 가는가》《꼭 알아야 할 과학상식 77》 등 다른 저서에서도 그런 그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 반면에 케빈 워윅은 인공지능·제어·로봇공학을 전공한 인공지능학과 교수다. 그에겐 '영국 최고의 로봇시대 예언자'라는 설명이 따른다.

《로봇의 시대》는 "로봇의 세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는 서문의 첫 구절대로 '일본 로봇 세계'를 발랄하고 속도감 있게 전달한다. 아이보 소개에 서보 모듈·서보 모터, 정보행·동보행 등 과학기술과 이론을 적절히 녹여 설명한다. 파라파라춤을 추는 SDR-3X는 로봇의 자유도를 설명하는 좋은 도구가 된다. 또 아시모를 통해 일본에서 이는 휴머노이드 선종을 소개한다. 이렇듯 이 책은 일본 로봇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일본 로봇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게 잘 구성됐지만, 한편으로 인터넷에서 쭉 뽑아놓은 자료를 정리한 정도에 그친다는 느낌

을 지을 수 없다. 왜일까? 그것은 바로 이 책에 지은이의 생각과 의견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지식과 상식을 읽기 좋게 늘어놓았을 뿐, 로봇이나 로봇과 함께 이를 미래에 대한 지은이 나름의 철학을 찾아볼 수 없다. 기사를 쓰듯 근거와 도움말을 적절히 배치했지만, 독자들이 원하는 지은이의 독특한 견해는 좀체 발견할 수 없다.

《로봇의 행진》은 지능적인 기계에 대해 이야기한다. 어느 정도로 지능적인가 하면 그 지능적인 기계는 미래의 인간을 능가하고 압도한다. 과연 가능한 일일까? 개발→발전→개발의 순환을 그대로 따른다면 그 과정 가운데 순간, 혹은 일정 시간 동안 기계가 인간보다 앞선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은이는 기계가 인간보다 더 지능적인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결론이 매우 실질적인 관점에서 도출됐고, 로봇이나 컴퓨터는 이를 증명하기 위한 예로 언급됐을 뿐이라고 말한다.

지은이가 책 전반에 걸쳐 주장하는 것은 한가지다. 인간은 뛰어난 지능 덕분에 현재 지구를 지배하고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 기계가 인간보다 더 지능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그때는 기계가 지구를 지배하는 생명체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지은이가 설명하는 지구 지배는 정치적 권력을 누가 쥐고 있는가에 달렸다. 즉 "기술진보는 다시 한번 인간의 역할을 기계에게 넘겨주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극히 평범한 설명으로 기계의 지구 지배를 예견하는 것이다.

인류와 지구의 미래 결정하는 로봇

두 책은 로봇의 현재를 이야기하면서 미래에 대한 예상도 놓치지 않는다. 《로봇의 시대》에서 보여주는

로봇 진화의 두가지 흐름은 명쾌하다. 하나는 인간과 같이 살아가며 일을 대신하거나 친구가 될 휴머노이드의 발전이다. 다른 하나는 환경의 로봇화다. 인공지능을 채용한 가전제품이나 지능형 교통 시스템 등의 생활화가 바로 그것이다. 앞에서 말했듯 《로봇의 행진》에서 지은이가 누누이 주장하는 미래상은 단 한가지. 기계의 지구 지배다.

《로봇의 시대》가 '가까운 미래'를 보여준다면, 《로봇의 시대》는 '먼 미래'에 가깝다. 가깝든 멀든 로봇을 만나야 할 미래가 어떤 모습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독자의 몫이다. —차정신기자